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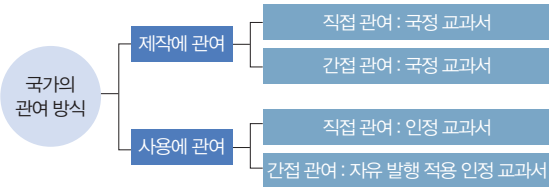
학교생활

##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의 구분 기준은 뭔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예전보다 다양해진 것 같아요. 따로 정해진 교과서 없이 수업하는 과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몇 년 전 역사 교과서 논란 때 들은 기억이 있어 알고 있지만, 검정 교과서나 인정 교과서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의 종류와 차이가 궁금합니다.

김형주(48·서울 강동구 상일동)

표 국가의 관여 방식에 따른 국·검·인정 교과서의 차이



### MORE TIP

정부는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가 혁신교육과 고교학점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 만큼, 입시와 무관한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편파적인 교사가 편향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각 학교에는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 절차는 물론 학교 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국가 교육과정도 존재하므로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 A 국가의 관여 방식에 따라 국정·검정·인정·자유 발행 적용 인정 교과서로 구분합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부산대 교육학과 박창언 교수는 “교과서 제도에 대한 관점은 ‘국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이 있는데, 전자는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채택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국가의 관여가 최소화돼 민간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는 반면,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해야 교과서 지위를 얻기 때문에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인정 교과서는 국·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인정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얻기 위해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집필자나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심사 기준을 검증해 보다 융통성 있게 교과서를 개발하는 자유 발행 적용 인정 교과서, 두 종류로 다시 나뉩니다. 박 교수는 “국가의 개입은 교과서 편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교과서 선택의 폭을 좁혀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점차 인정제와 자유 발행제로 유연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



입시

## 학생부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독서, 봉사 활동 등 사실에 기반한 수정은 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못한 채 학기말을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방학식도 줌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많아서 독서 활동 기록을 비롯해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 중산고 박상훈 교사는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www.neis.go.kr)에 들어가면 학생부 수상 경력, 봉사 활동 실적, 교과 학습 및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잘못 기재됐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담임 교사를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월 말까지 해당 학년으로 보기 때문에 1~2월에 봉사활동을 해도 기재됩니다. 봉사 활동은 나이스와 연계된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장은 “정성 평가로 이뤄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해당 학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만약 공을 들였던 수행평가나 부각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용한 플랫폼을 통해 담당 교사에게 문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교사가 수업 시간에 확인한 사항이어야 한다. 이때 학생부 기재 여부는 교사가 판단한다. 간혹 정성 평가 부분의 수정 여부를 문의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전합니다. @

코로나19로 2학기도 등교를 거의 못했습니다. 보통 학기말에는 학생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과목별로 자유 주제 발표를 준비하는 등 바쁘게 보냈는데, 이번 학기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제출하려고 준비했던 독서록과 주제 발표 보고서 등도 방학식을 줌으로 하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했어요. 2월 1일 개학식 때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누락이라도 될까 걱정입니다.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만약 수정 사항이 있으면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김연선(48·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MORE TIP

최 교장은 “2020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라 고등학교의 기초교과(군)와 탐구교과(군)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한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합니다. 참고로 2월까지 해당 학년의 학생부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독서나 자율동아리 등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면 담임 교사나 담당 교과 교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